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김계하¹ · 박경숙²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¹, 시간강사²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among Young and Middle-aged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Kim, Kye Ha¹ · Park, Gyeong Sook²

¹Assistant Professor, ²Part-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among young and middle-aged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116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4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in C area from October to November 2008. All subjects were questioned about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by the APGAR scal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SPSS/WIN 12.0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Subjects had a moderate level of family function (5.31) and self-esteem (28.1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family function according to age, monthly income, economic status, and disability si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ccording to age, gender, monthly income, and economic status. The level of family function and income were related to self-esteem.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mprove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among young and middle-aged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Nursing intervention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family function in promoting self-esteem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Key Words : Adults with disabilities, Family function, Self estee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이유로 각종 장애 발생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2,010,595명으로 보고되었는데(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 이는

1997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장애인 수 425,064명과 2002년의 1,454,215명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의 수는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장애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현상으로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불쌍한 존재,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졌다(Nosek, Hughes, Swedlund, Taylor, & Swank, 2003). 특히 신체적 활동에서의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지체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Corresponding address: Park, Gyeong-Sook, 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501-759, Korea. Tel: 82-62-230-6326, Fax: 82-62-230-6329, E-mail: parkgs0807@hanmail.net

*본 연구는 2008년 조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투고일 2008년 1월 11일 수정일 2009년 4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1일

평가를 의미하는 신체적 자기개념이 낮다. 예전부터 지체장애인은 자신의 신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자기혐오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Koo, 1993). Nosek 등(2003)의 연구에서도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장애가 없는 여성들보다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청년기와 중년기는 인생주기에 있어서 매우 활동성이 강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의 의지가 있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제한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Kim & Kim, 2005; Yeager, Kaye, Reed, & Doe, 2006). Erikson(1963)은 중년기의 발달과업을 생산성이라고 하였는데 지체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생산성의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할 때 절망감과 소외감, 단절감 등을 느끼어 더욱더 극심한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다. 청년기는 발달과정상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으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취업과 같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많은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장애로 인해 많은 차별과 편견을 받을 경우 더욱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것이다(Hong, 2006; Kim & Kim, 2005). Pillemer, Lvcevic, Gooze와 Collins(2007)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주로 성취/숙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중년기 대상자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년기와 중년기 지체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Nosek et al., 2003). 장애가 있는 개인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자신만의 세계에 있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립된 생활은 가까운 가족과 주위 자원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잦은 충돌을 하게 됨으로써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가족기능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You, 2005).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기능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가족기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Barrowclough 등(2003)은 가족 구성원의 비판적인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Jeon(1993)도 과거 선행연구에서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불안, 우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되어지지만 국내 논문 중에는 정신장애인의 가족기능이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을 뿐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할 시기인 청년기와 중년기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 정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지체장애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팔과 다리 그리고 척추의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족기능

가족기능이란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미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맡겨진 모든 작용으로(Smilkstein, 1980), 본 연구에서는 Smilkstein (1978)이 개발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Questionnaire)를 Kang, Young, Lee, Lee와 Shim(198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도로(Coopersmith, 1967),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 (1974)이 번역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만 2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청년기 남녀 51명과 만 4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 56명의 총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이변량 상관분석(Bivariate correlation)의 표본 수 결정을 위한 Cohen(1988)의 공식에 따라 $\alpha = .05$, $power = .80$, 상관분석의 중간 효과 크기 =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수가 88명인

것을 근거로 본 연구의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도구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Smilkstein(1978)이 개발하고 Kang 등 (1984)이 번역한 가족기능도 지수(Family APGAR Questionnair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 상호간의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나타내는 5개의 가족기능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을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2점(항상 만족한다)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가능한 총합은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번역한 Rosenberg's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의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형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총 범위는 10~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설문조사에 앞서 먼저 본 연구자들과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2인이 C도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 연합회 4개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들의 허락을 받았다. 이후에 다시 각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참여 과정 및 참여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대상자들 중 직접 설문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대상자가 원하는 응답에 기록하였다. 총 13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 14부를 제외한 총 116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s test로 확인하였다.
-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지체장애인을 확률 표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방 소재의 일부 지체장애인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표집한 임의표출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03세로 청년군은 44.0%, 중년층은 56.0%였다. 이 중 남자는 57.8%, 여자는 42.2%였고, 결혼상태는 현재 기혼인 경우가 57.8%, 미혼은 37.1%였으며, 이혼이나 사별 또는 별거의 경우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54.4%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는 대상자는 35.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최종 학력은 고졸이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21.6%였다. 대다수(69.0%)가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상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경제상태를 ‘매우 부족하다’(39.7%)와 ‘부족하다’(32.8%)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74.1% 되었다(Table 1).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등급은 I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 ± SD
Age(yr)		43.03 ± 9.94
	Young adult	51 (44.0)
	Middle adult	65 (56.0)
Gender	Male	67 (57.8)
	Female	49 (42.2)
Marital status	Married	67 (57.8)
	Single	43 (37.1)
	Others	6 (5.1)
Religion	Protestant	63 (54.4)
	Catholic	12 (10.3)
	None	41 (35.3)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12 (10.3)
	Middle school	25 (21.6)
	High school	60 (51.7)
	≥ College	19 (16.4)
Income (10,000 won)	< 100	80 (69.0)
	≥ 100 ~ < 200	25 (21.5)
	≥ 200	11 (9.5)
Subjective economy status	Enough	9 (7.8)
	Moderate	23 (19.7)
	Less than enough	38 (32.8)
	Much less than enough	46 (39.7)
Job	Employed	30 (25.9)
	Unemployed	86 (74.1)

등급의 경우가 38.9%, II등급이 31.9%로 중증 장애인이 많았고, 장애 부위는 하지가 53.4%로 가장 많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간은 평균 21년으로 15년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55.2%)이었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의 집단이 각각 16.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장애 원인은 사고로 인한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42.2%였다(Table 2).

2.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들의 가족기능 정도는 측정 가능한 범위 0~10 중 평균 5.31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최저 14에서 최대 40까지 측정되었고 평균은 28.13이었다.

3. 일반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연령($t = 2.469, p = .015$), 월수입($F = 4.071, p = .020$), 주관적 경제상태($F = 5.439, p = .002$)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었다(Table 4). 연령의 경우, 청년층에서 인식하는 가족기능 정도가 중년층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높았고, 월수입은 사후 검증 결과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는 집단이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집단에 비해 가족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에서도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가족기능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연령($t = 2.007, p = .047$), 성별($t = -2.105, p = .037$), 월수입($F = 5.817, p = .004$), 주관적 경제상태($F = 3.479, p = .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청년층이 중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

Table 2. Disability-related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isability grade	I	45 (38.9)
	II	37 (31.9)
	III	23 (19.8)
	IV	3 (2.6)
	V	4 (3.4)
	VI	4 (3.4)
Disability site	Lower limbs	62 (53.4)
	Upper limbs	7 (6.1)
	Both limbs	34 (29.3)
	Spine	13 (11.2)
Duration of having disability (yrs)	< 5	14 (12.0)
	≥ 5 ~ <10	19 (16.4)
	≥ 10 ~ <15	19 (16.4)
	≥ 15	64 (55.2)
Cause of disability	Congenital disease	17 (14.7)
	Acquired disease	49 (42.2)
	Accident	50 (43.1)

Table 3.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N=116)

Variables	M ± SD	Range
Family function	5.31 ± 2.88	0 ~ 10
Adaptation	1.12 ± 0.71	0 ~ 2
Partnership	1.03 ± 0.68	0 ~ 2
Growth	1.14 ± 0.71	0 ~ 2
Affection	1.07 ± 0.69	0 ~ 2
Resolve	0.96 ± 0.62	0 ~ 2
Self-esteem	28.13 ± 5.04	14 ~ 40

에서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지는 집단보다 자존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후 검증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장애부위($F = 3.955, p = .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하지 모두에 장애가 있는 집단은 척추에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가족기능의 정도가 낮았다(Table 5). 자아존중감 정도는 어떠한 장애관련 특성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mily function			Self-esteem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yrs)	Young adult	6.04 ± 2.58	2.469	.015	29.18 ± 5.05	2.007	.047
	Middle adult	4.74 ± 2.99			27.31 ± 4.92		
Gender	Male	5.01 ± 3.06	-1.296	.197	27.30 ± 4.91	-2.105	.037
	Female	5.71 ± 2.58			29.27 ± 5.06		
Marital status	Married	5.27 ± 2.68	0.987	.376	27.94 ± 5.22	0.130	.879
	Single	5.58 ± 3.15			28.44 ± 4.95		
	Others	3.83 ± 2.99			28.00 ± 4.15		
Religion	Christianity	5.30 ± 2.88	0.329	.720	28.56 ± 5.17	0.578	.562
	Catholic	5.92 ± 3.73			28.17 ± 4.32		
	None	5.15 ± 2.65			27.46 ± 5.08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4.83 ± 2.66	1.775	.156	25.33 ± 3.58	1.416	.242
	Middle school	4.28 ± 2.69			28.68 ± 5.34		
	High school	5.63 ± 2.99			28.33 ± 5.01		
	≥ College	5.95 ± 2.72			28.53 ± 5.35		
Income (10,000 won)*	< 100	4.90 ± 2.88 ^a	4.071	.020	27.13 ± 4.77 ^a	5.817	.004
	≥ 100 ~ < 200	5.72 ± 2.79			30.76 ± 4.98 ^b		
	≥ 200	7.36 ± 2.20 ^b			29.45 ± 5.11		
Subjective economy status*	Enough	7.33 ± 2.74	5.439	.002	29.56 ± 3.57	3.479	.018
	Moderate	6.78 ± 2.33 ^a			29.43 ± 4.60		
	Less than enough	4.87 ± 2.84			29.18 ± 4.53		
	Much less than enough	4.54 ± 2.80 ^b			26.33 ± 5.47		
Job	Employed	5.40 ± 2.91	0.197	.844	28.93 ± 5.68	1.014	.313
	Unemployed	5.28 ± 2.88			27.85 ± 4.81		

* Scheffe's test.

4.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어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39, p = .000$). 또한 가족기능의 하부영역을 볼 때 모든 하부영역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6).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입력하였는데 이 변수는 자아존중감의 19.2%를 설명하였다($t = 5.212, p = .000$). 두

번째 단계로 일반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유의하였던 연령, 성별,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를 입력하였더니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이 30.1%로 증가하였다. 최종 모델에서 가족기능과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t = -2.489, p = .014$)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IV. 논 의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가족기능 정도는 측정가능한 점수 0에서 10점 중 평균 5.31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중년 여성의 가족기능 정도 6.25(Kim, Kim, & Park, 2005)에 비해 낮은 정도이

Table 5.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disability-related characteristics (N=1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Family function			Self-esteem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Disability grade	I	4.78 ± 2.84			28.18 ± 5.96		
	II	5.38 ± 2.97			26.84 ± 3.44		
	III	6.04 ± 2.79	0.713	.615	28.91 ± 4.42	1.720	.136
	IV	5.00 ± 4.36			27.00 ± 7.55		
	V	6.25 ± 2.75			32.25 ± 3.77		
	VI	5.75 ± 2.50			30.75 ± 6.85		
Disability site*	Lower limbs	5.50 ± 2.54	3.955	.010	29.00 ± 5.22	1.904	.133
	Upper limbs	5.71 ± 3.30			28.57 ± 5.00		
	Both limbs	4.18 ± 3.20 ^a			26.47 ± 4.22		
	Spine	7.15 ± 2.30 ^b			28.08 ± 5.66		
Duration of having disability (yrs)	<5	6.47 ± 2.59	1.341	.264	27.57 ± 3.99	1.513	.215
	≥5 ~ <10	4.95 ± 2.36			27.00 ± 4.70		
	≥10 ~ <15	4.61 ± 3.06			26.74 ± 4.98		
	≥15	5.21 ± 3.01			29.00 ± 5.29		
Cause of disability	Congenital disease	4.72 ± 3.12	0.294	.746	26.82 ± 5.76	1.699	.187
	Acquired disease	5.25 ± 2.89			29.08 ± 4.77		
	Accident	5.31 ± 2.86			27.64 ± 4.97		

*Scheffé's test.

Table 6. Correlation of family function and self-esteem (N=116)

	Family function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Total
Self-esteem	.424 (.000)	.284 (.002)	.435 (.000)	.397 (.000)	.295 (.001)	.439 (.000)

Table 7. The effect on self-esteem (N=116)

	Self-esteem				
	B	R ²	β	t	p
Family function	0.769	.192	.439	5.212	.000
Income	-2.725	.301	-.251	-2.489	.014

며, 사용한 도구는 다르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중정도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던 Woo, No와 Park(2005)의 연구결과보다도 다소 낮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후천성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Kim(200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가족기능이 5.03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과 거의 유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은 일반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가족기능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지체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서 가족기능이 감소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가족들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8.13으로 평균평점으로 보면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Kim 등(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중년 여성의 자아존중감 29.06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00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3.55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4등급의 중증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2004)에서 보고된 자아존중감 평균 2.26보다는 약간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지체장애인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들에 비해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지체장애인에게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일 연령대의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찾아내어 이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월수입,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인지하는 가족기능 정도가 중년층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청년층이 중년층에 비해 가족기능 정도가 높았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생애발달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에 청년기와 중년기를 구분한 후 좀 더 많은 수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노년기 지체장애인과 같은 타 연령층의 장애인에 대한 결과와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은 사후 검정 결과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집단이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는 집단에 비해 가족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가족기능 정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가족기능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Woo 등(2005)이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기능 정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의 경우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Lee(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Lee(2007)

는 대학생의 경우 성별이나 부모와의 동거여부, 또는 가족형태 등이 가족의 기능과 유의한 관련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각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 연구는 거의 없어서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표집하여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에 대한 반복연구를 시행하고 이 결과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아존중감은 연령, 성별,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이 중년층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하였던 선행연구(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3)에서 중년기를 기점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들에서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 역시 청년기에 비해 중년기에 자아존중감이 저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연령대라 할 지라도 일반인들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므로 지체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여성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선행연구(Pepi, Faria, & Alesi, 2006)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흔히 남성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높은 성취를 얻는 데 관심이 많은데(Lee & Lee, 2006) 본 연구에서의 지체장애인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이러한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월수입의 경우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만'인 집단이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지는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Lee(2007)의 연구 및 Pepi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지체장애인들의 경제적 측면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 및 자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재활을 위

한 복지정책은 소득 보장이거나 고용 면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에 치우친 형식적인 사업이 많은데, 이는 개인적 노력으로 개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건강관리제공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보건관련 정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상하지 모두에 장애가 있는 집단은 척추에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가족기능의 정도가 낮았다. Kim(2005)은 지체장애인의 신체상태가 나쁠수록 가족원들의 부담을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상하지 모두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가족원들의 부담을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에 중증 지체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가정간호와의 연계를 고려하거나 장애인 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재활간호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간호사에 의해 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관련 특성들은 자아존중감과 어떠한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록 장애등급 자체를 올릴 수는 없다 할 지라도 현 상태에서 좀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어 대상자의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7)의 연구에서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요인인 가족상호간의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 역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7)은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기능을 잘하는 가족은 다양한 문제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계속 성장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Yoon & Kim, 2005)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하부요인인 가족 성장도 역시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사회생활에서

반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상호친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족원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애정도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성별,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를 dummy 변수화한 후 가족기능 변수와 함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가족기능과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0.1%였다. 이는 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Preechawong et al., 2007)에서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설명력이 30.1%로 다소 낮기 때문에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측정가능한 0~10점 중 평균 5.31이었고, 자아존중감 정도는 최대 40점까지 가능한 점수 중 평균 28.13이었다. 대상자들은 연령, 월수입, 주관적 경제상태 및 장애부위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었고, 자아존중감은 연령, 성별, 월수입과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들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은 적응도, 협력도, 성장도, 애정도, 친밀도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고 가족기능과 1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비록 임의

표출의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청·중년기 지체장애인의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타 연령층의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행하여 이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rrowclough, C., Tarrier, N., Humphreys, L., Ward, J., Gregg, L., & Andrews, B. (2003). Self-esteem in schizophrenia: Relationships between self-evaluation, family attitudes, and symptomatology. *J Abnorm Psychol, 112*(1), 92-99.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W.W.Norton.
- Hong, S. R. (2006).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youth. *J Korean Home Manage Assoc, 24*(5), 37-51.
- Jeon, K. Y. (1993). *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University, Daegu.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29.
- Kang, S. K., Young, B. B., Lee, H. R., Lee, D. B., & Shim, U. T. (1984). A study of family APGAR scores for evaluating family function. *J Korean Acad Fam Med, 5*(12), 6-13.
- Kim, J. Y. (1997). *A study on child mental health by family fun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K. H. (2006). Construction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model in acquired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J Korean Acad Adult Nurs, 18*(2), 213-222.
- Kim, K. H., & Kim, O. S. (2005). Influencing factors on HRQOL of physically disabled persons. *J Korean Acad Nurs, 35*(3), 478-486.
- Kim, K. H., Kim, H. S., & Park, K. S. (2005).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in middle-aged women. *J Korean Acad Adult Nurs, 17*(2), 200-207.
- Koo, B. K. (1993). Self-esteem and defense mechanism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Child Spec Educ Needs, 2*, 207-238.
- Lee, H. Y. (2006). Determinants of family functioning among custodial grandparents. *J Welfare Aged, 32*, 327-355.
- Lee, J. H. (2007). *The effect of middle-aged persons' leisure life-style on family function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Lee, H. P., & Lee, H. S.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sexual differences. *Korean J Health Psychol, 11*(2), 329-344.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7, May 7). *The registration stat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rch, 2007*. Retrieved April 4, 2008, from www.mohw.go.kr/user.tdf
- Nosek, M. A., Hughes, R. B., Swedlund, N., Taylor, H. B., & Swank, P. (2003). Self-esteem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oc Sci Med, 56*(8), 1737-1747.
- Park, J. S. (2004). An effect of therapeutic recreation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Korea Sport Res, 15*(5), 1371-1380.
- Pepi, A., Faria, L., & Alesi, M. (2006). Personal conceptions of intelligence,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in Italian and Portuguese students. *Adolescence, 41*(164), 615-631.
- Pillemer, D. B., Lvcvic, Z., Gooze, R. A., & Collins, K. A. (2007). Self-esteem memories: Feeling good about achievement success, feeling bad about relationship distress. *Pers Soc Psychol Bull, 33*(9), 1292-1305.
- Preechawong, S., Zauszniewski, J. A., Heinzer, M. M., Musil, C. M., Kerckmar, C., & Aswinanoh, R. (2007). Relationships of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and resourceful coping of Thai adolescents with asthma. *Issues Ment Health Nurs, 28*(1), 21-3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lkstein, G. (1978). The family APGAR: A proposal for a family function test and its use by physician. *J Fam Pract, 6*(6), 1231-1240.
- Smilkstein, G. (1980). The cycle of family function: A conceptual model for family medicine. *J Fam Pract, 11*(2), 223-232.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3).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 Pers Soc Psychol, 84*(1), 205-220.
- Woo, S. H., No, G. Y., & Park, Y. S. (2005).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hope in adolescents. *J Korean Soc Sch Health, 18*(1), 47-58.
- Yeager, P., Kaye, H. S., Reed, M., & Doe, T. M. (2006). Assistive technology and employment: Experiences of Californians with disabilities. *Work, 27*(4), 333-344.
- Yoon, C. H., & Kim, L. J. (2005). A proposal for family-related course contents at college-level to enhance family functioning. *Dongduk J Life Sci Stud, 10*, 73-95.
- You, J. H.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and family function between parents of mentally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